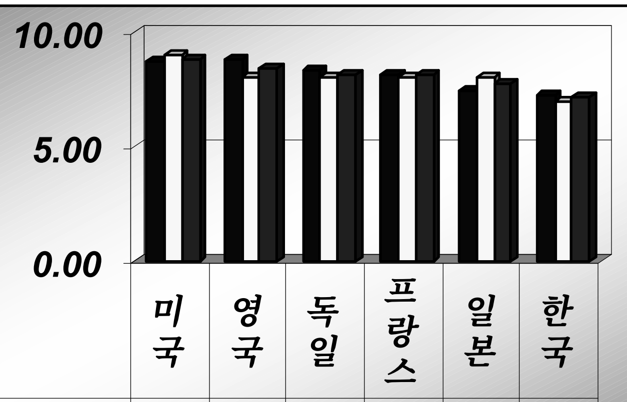
■ 주요국의 e-비즈니스 준비도



	미국	영국	독일	프랑스	일본	한국
■ 사업환경	8.69	8.80	8.32	8.17	7.43	7.30
□ 연계성	9.00	8.00	8.00	8.00	8.00	7.00
■ e-비즈니스준비도	8.80	8.40	8.10	8.10	7.70	7.20

자료: EIU, *e-Business Readiness Ranking*, 2000.

- **e-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EIU(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)는 최근 60개국을 대상으로 e-Business 준비 순위를 발표함**
  -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업 환경 전망(business environment: 70개 지표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사업 환경 측정)과 연계성(Connectivity: 통신망, 접속 요금, 정보 활용 능력 등을 기준)을 기준으로 측정함

- **우리나라의 e-비즈니스 준비도는 7.2로서 60개국 중에서 23위를 기록하였으며,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**
  -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, 사업 환경, 연계성 모두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, 결과적으로 e-비즈니스 준비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임
  - 특히 통신망, 접속 요금, 정보 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연계성은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이 8.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7.0인 것으로 나타남
  - 향후 B2B를 중심으로 한 e-비즈니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중요하며, 이 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임

▌신광철 연구위원 kcshin@hri.co.kr ☎3669-4036